

서울대 인문 276점·전남대 의예과 282점

광주시교육청 수능 가채점 결과 분석

2023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 지원 가능 점수(원점수 기준)는 인문계열 276점, 자연계열 272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려대와 연세대 지원 가능 점수는 인문계열 262점, 자연계열 268점 안팎으로 예상됐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학정보분석팀이 광주지역 고3 재학생을 기준으로 지난 17일 치른 2023학년도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학정보분석팀은 국어·수학·탐구 3개 영역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으로 학교별 지원 가능 점수를 추정했다.

서울대는 인문계열 276점 내외, 자연계열 272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연세대의 경우 인문계열 262점 내외, 자연계열 268점 안팎으로 추정했다.

광주교대는 235점,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266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268점 내외가 지

조선대 의예 278·광주교대 235점

지스트 266·에너지공대 268점

내신 1·2등급 평균 성적 나올 듯

내달 16일 실채점 분석 설명회

원 가능선이다.

전남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233점, 국어교육과 230점, 행정학과 228점, 경영학부 223점,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205점 내외로 판단된다.

자연계열은 의예과 282점, 치의학과 276점, 약학부 274점, 수의예과 268점, 전기공학과 253점, 간호학과 228점 등이다.

자연계열은 수학 지정 학과 212점, 수학 미지정 학과 206점 내외에서 지원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조선대 인문계열은 경찰행정학과 204점, 영어교

육과 197점, 국어교육과 185점,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135점 내외다.

또 자연계열은 의예과 278점, 치의예과 275점, 약학과 272점, 간호학과 209점, 자연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129점 내외다.

수능시험 문제 분석결과 올해 수능은 상당히 어려웠던 전년도와 비교해 다소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는 전년도보다 다소 쉬운 수준으로, 공통과목 중 독서에서 '기초대사양 연구'를 소재로 한 과학지문이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수학은 공통과목 문항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다수 출제돼 시간 관리의 어려움으로 체감 난이도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했다.

영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EBS 간접연계로만 출제됐으며 빈칸추론 문항에서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봤다.

사회탐구는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약간 어렵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많이 선택하는 생활과윤리·사회문화 과목은 40점대 초중반에서 1등급

컷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했다.

과학탐구는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어려워 물리학 I·지구과학Ⅱ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40점대 중반 이하로 1등급 컷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내신 1,2등급 수험생에게 이번 수능은 어렵지 않아 자신들의 평소 성적을 유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학과 영어에서 풀이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중 킬러 문항들이 출제돼 내신 3,4등급 수험생들이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며 "12월 9일 최종 수능 성적이 통지되면 대학별 환산점수로 계산해 유효리를 판단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4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가채점 결과분석 설명회를 진행한다. 다음달 16일에는 실채점 결과분석 설명회를 진행하고 학생, 학부모를 위한 영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수능 영어 '23번 지문' 업체 모의고사와 같다?

교육과정평가원 "우연의 일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일부 문항이 대형 입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3학년도 수능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게시판'을 보면 10여명의 수험생이 영어영역 23번 문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논란이 된 23번 문항은 지문은 캐스 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펴낸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했다.

이의신청자들은 이 지문이 대형 입사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해당 문제가 사교육 입시 강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대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가 21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정문 앞에서 전남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대, 여수대 통합 때 약속 지켜라”

여수시민단체, 한의대 설치 등 이행 촉구...전남대 “용역 예정”

여수 시민단체가 전남대측에 17년전 여수대를 전남대로 통합할 때 약속한 조건을 지키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나섰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는 21일 전남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5년 전남대와 당시 여수대가 통합하며 맺은 ‘통합양

해각서’를 지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이 각서의 12개 합의사항 중 특히 ‘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 캠퍼스에 둔다’와 ‘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을 통합 완성 전까지 여수캠퍼스(국동)에 설치·운영한다’ 등의 이행을 촉구했다.

배석준 전남대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부와 국회에서 시위를 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남대 앞에서 시위를 했다”며 “전남대가 각서의 당사자인데, 교육부의 지시가 없어 일을 못한다는 식의 제3자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남대 관계자는 “전남대 국동캠퍼스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및 관련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조선대·서울대 ‘5·18 왜곡도서’ 대출 중지

5·18기념재단, 전국 주요 도서관 8곳에 대출 금지 요청

조선대와 호남대, 광주교대 등 광주 3개 대학 도서관에서 5·18 펴헤·왜곡 서적을 소장하고 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 고려대 등 전국 5곳의 도서관에서도 5·18 펴헤·왜곡 서적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은 최근 전국 주요 도서관을 대상으로 5·18 펴헤·왜곡 서적 소장·대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8곳이 적발돼 대출 금지 요청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선대에서는 ‘솔로몬 앞에 선 5·18’, 호남대와 광주교대에서는 ‘화려한 사기극의 실제 5·18’ 등 왜곡 서적이 발견됐다. 또 서울대, 고려대, 서울여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제 5·18’, ‘역사로서의 5·18’, ‘보랏빛 호수’ 등 펴헤·왜곡 서적을 소장하고 대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대에서도 ‘역사로서의 5·18’, ‘5·18 분석 최종보고서’ 등 펴헤·왜곡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

으나 대출금지 목록에 올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5·18기념재단은 이들 도서관에 대출 금지 요청을 보냈으며 서울대, 조선대로부터 대출 금지 조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5월에도 국내 대학도서관 453곳, 공공도서관 1276곳을 조사해 ‘전두환 회고록’,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등 서적을 소장한 도서관 18곳에 대출 금지를 요청했다.

5·18 펴헤·왜곡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열린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오후 3단체 등과 공동으로 ‘5·18역사왜곡 현황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언론매체의 5·18 왜곡보도 현황분석’을 발표하고 임지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18특별법 제8조 현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 ‘쫄끔 비’

오늘 오후부터 5~20mm

사상 유례없는 장기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에 22일 오후부터 23일 새벽사이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2일 늦은 오후부터 23일 새벽까지 광주·전남지역에 5~20mm

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고 21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번 비는 22일 오후 3시쯤부터 내리다 그치다가 반복하다 23일 새벽 6시 전후로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6~12도, 낮 최고기온은 16~18도에 분포하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8~13도, 낮 최고기온은 14~18도 내외로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22일 낮부터 서해남부 먼바다에서는 초속 8~14m의 강한 바람이 불어 물결이 1.5~3.5m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현기 기자 hyunki@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